

東洋人の 自然觀과 西洋人の 自然觀

金 儀 遠

順應이나 對立이나

노자(老子)는 일찍이 “사람은 땅에 따르고(人法地) 땅은 하늘에 따르고(地法天) 하늘은 도에 따르고(天法道) 도는 자연에 따른다(道法自然)” 하였다.

이것은 성리학(性理學)에서 말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사상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地水火風空(天)이란 이른바 불교의 오체조화(五體調和)사상과 중국의 이른바 음양오행(陰陽五行 : 木火土金水)과 어울려 인생도 자연이고, 자연의 일부가 인생이고, 자연속에 인생이 있고, 인생의 섭리도 자연 그 자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역풍과 계절풍이 번갈아 불어 닥침으로써 강우량이 많다는 것과 무서운 태풍을 경험한 동양민족들은 물의 물리적 힘 즉, 자연의 한계를 넘은 홍수를 통하여 인간이 자연현상에 대항할 때 인간은 멸망한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

자연은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서양사람들처럼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두려워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바뀌어 갔다.

이리하여 동양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속에서 자연철학적 발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사람들에 있어 물과 불은 위대한 주력(呪力)을 가진 존재로 알려져 왔다. 서양의 유일신에 비해 많은 신을 믿는 동양인은 불의 신과 물의 신의 신앙을 인간생활에 끌어들여 이것을 숭상하고 겁내면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또한 그 영력(靈力)의 정화작용을 몸에 지니면서, 보다 큰 행복과 생활력을 얻으려는 것이 동양인의 기본관념이었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은 이러한 동양인과는 달리 불과 물은 인간과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은 인간이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항과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과 정복 과정에서 서양의 근대과학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인간의 능력을 무한한 것으로 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인간의 능력이 유한하다고 하면 언젠간 그 반작용이 인간을

파멸시킬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뇌산양(賴山陽)같은 사람은 ‘自然’을 명사(名詞)로 사용하지 않고 부사(副詞)로만 사용하고 있다. 동양적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인생과 불과 물의 성격이 서로 다른 존재이기는 하나 상호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우리의 신화를 보아도 화신(火神)과 수신(水神)이 다투는 장면은 별로 없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화신과 수신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불과 물이 자연에 있어 큰 힘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다만 동양에서는 이 자연의 힘이 인간의 힘보다 월등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서양의 근본적 차이점이 있다.

산을 神聖視한 우리 祖上

그렇기 때문에 불과 물은 동양인에게는 생활의 일부로써 인간과 조화를 취하고, 인간은 이 조화속에서 생명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불과 물의 쌍방이 정반대의 성격이라 할지라도 상극적(相剋的)인 존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하물며 인간이 자연을 정복 운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육당(六堂) 최남선은 “.....한민족생활에 있어서 그 국토를 존경하는 감정은 심히 소중한 것이요, 그 존경하는 태도는 신앙적·종교적으로까지 가야 비로소 든든한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네들은 신앙적으로 높이는 성산(聖山)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대소변을 받아 가지고 나올 그릇을 가지고 가서 행여나 신성한 몸둥이를 더럽힐까

조심을 하고 또 산중에서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큰소리로 지껄이지도 않고 마구 몸을 가지지도 아니하여 행여나 신령을 성나게 할까봐서 극진극진 조심을 하였습니다. 요사이 철부족한 사람들은 혹시 이것을 어리석은 일로 돌리고 코웃음할는지 모르지만 산악과 산천강해(山川江海)를 통해서 그네의 국토에 대하여 그네들이 이렇게 엄숙한 마음을 가진 것을 나는 그네의 총명으로써 못내 탄복합니다...

요새 와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방자한 사상에 물들어서 얼른하면 자연을 정복한다는 등, 산악을 정복하였다는 등 하여 천지조화를 힘으로 정복하느니라 하는 턱없는 만심을 가지고 버릇이 갈수록 늘어감은 진실로 한탄할 일입니다.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다만 신순(信順)과 융합(融合)이 있을 뿐이요 온전히 은혜를 받고 못 받느냐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무궁무진한 천지조화 중에서 전기를 좀 끝어다 쓰는 것이 무슨 자연의 정복이겠습니까. 숨이 턱에 닿아서 어느 산봉우리에 발을 좀 붙인 것이 무엇이 산악을 정복한 것입니까. 이런 것을 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철없고 염치없음을 나타내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닐 따름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좀 인용이 길었지만, 이러한 사고는 육당선생 개인의 주장이라기보다 우리 민족이 갖는 일관된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自然을 征服할수 있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여러 나라들이 자연을 정복하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서양의 과학사상이 들어온 후의 일이었다.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자연에 저항한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한다던가. 혹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작금의 이러한 생각의 모순, 즉 정복되었을 자연이 인간사회를 파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조건 이 논리를 승복하지 않는 것이 동양인이다.

대체로 동양삼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자연을 정복한다는 사고방식을 서양으로부터 배웠다. 서양의 과학을 받아들일 때 물리학을 ‘究理’라고도 번역했으나 궁리란 문자상의 해석으로는 자연의 원리를 규명한다는 뜻이지 자연을 정복한다는 뜻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원리를 규명하면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얼마전 대청댐에 가보았더니 준공비가 서있었다. 그 비문에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여……’라는 구절을 보고 씩씩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댐(堰堤) 하나 쌓아놓고 금강(錦江)을 정복했다고 큰소리치고 비문에도 새겨놓았는데 얼마 전의 엄청난 금강홍수는 왜 일어났나.

어쨌든 자연을 정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대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덕택에 의학이나 자연과학은 발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 예를 나는 모른다. 생명의 본체도 아직 모르고 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물리학의 발달로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냈고, 원소(元素)분리는 되지만 원소자체를 만든 예가 없다. 예방의학은 진보했지만 그것은 자연을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했을 따름이다.

이 설명도 현재까지 설명할 수 없는 부문이 더 많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발견의 뉴스는 그 전날까지 몰랐던 것을 보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일기예보에서 흔히 말하는 태풍예보를 보라, 제주남쪽에 있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중이라 할 때 이것의 방향을 돌려 놓을 수는 없다. 태풍의 눈을 움직이는데는 원자폭탄 몇천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自然을 征服하다니…

오늘날의 과학은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낼 만큼 발달했지만 태풍의 방향 하나 바뀌놓을 재주는 없다.

확실히 태풍의 위치나 진로를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대과학의 덕이라면 덕이다. 그러나 태풍의 위치나 진로쯤 알았다고 해서 이것을 정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인간의 오만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이지, 결코 정복은 아니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현명하게도 자연이란 것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이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을 생각해 왔다.

선조들은 하천(河川)을 천택(川澤)이라 했다. 태풍이나 홍수 또는 한발등 자연재해가 심했던 옛날에는 ‘천택은 천리(天理)다’라고 했다. 하천이 구불구불 사행(蛇行)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 서투른 기술로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는 계율속에 살아왔다.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른바 직강(直江)공사란 것을 많이 했다. 농경지 몇평 늘리려고 강의 연장을 줄여 직선화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강개발이란 미명아래 모래 좀 파먹기 위해 한강의 하폭을 줄여 놓았다. 하천의 직강공사란 것은 하천의 연장을 줄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만큼 강물의 속도를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는 하천의 중류(中流)나 하류의 홍수를 조장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무시한 새마을사업의 직강공사로 많은 홍수피해를 입었다.

한강개발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는 백사장은 50년 혹은 100년에 한번 닥칠 큰 비에 대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소위 고수부지를 만들고 하폭을 줄인다는 것은 훗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재앙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면 서양사람들은 왜 자연을 정복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자연의 이변이 많은 동양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인재(人災)는 많지만 우리네처럼 물이나 불에 의한 자연재해는 흔치 않다. 베스비오스 화산의 폭발로 폼페이시가지가 매몰된 것은 보기 드문 예에 속한다. 대체로 서양사람들은 자연의 무서움을 모르고 반동으로서 인간의 힘을 강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나일江邊 沃土의 砂漠化

고대 이집트 이후 가령 피라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도 생각하는 대로의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했다. 그리스나 로마시대에는 산을 온통 하나 무너뜨려 신전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산을 허문다거나 바위를 깨뜨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형태나 위치를 변경하데 지나지 않는다. 자연에 가까운 것을 합성해서 만들었다 해서 그것이 자

연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들을 인간의 힘이 자연을 정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불과하다.

이를테면 나일강의 동쪽은 비옥한 평야였다 한다. 사막의 동점(東漸)작용으로 나일강의 동쪽까지 사막화함으로써 당시의 왕조는 멸망했다.

하루가 다르게 생산이 저하하여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간의 힘으로 저지할 수 없었는데도 인간은 자연을 정복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서양의학도 마찬가지다. 서양에서는 의학의 힘으로 만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의사 스스로가 자연의 섭리를 역행해서 자기가 먼저 죽는 경우도 많다.

자연의 섭리와 환자 자신의 마음의 암시 또는 오체조화의 회복이 병을 고친다는 가능성을 서양의학에서는 부정한다. 동양의학의 경락선(經絡線) 원리같은 것은 인정하려 들지도 않거니와 심지어 신앙에 의한 평온한 마음의 유지나 주술적(呪術的)인 자율신경의 균형회복법 같은 것은 전근대적 미신으로 일소에 부친다. 그 실효에 있어서는 우연이란 한마디로 처리해 버리기 일쑤다.

주사나 약물로 일관하는 서양의학으로 인류는 과연 행복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61年 周期의 辛酉革命說

중국사람들도 자연을 투쟁이나 대상물로는 생각지 않는다. 중국의 자연철학의 사고방식은 자연은 절대적인 것인 동시에 인생의 규범이며 외경의 존재로 생각한다.

중국의 고대도시들은 수없이 멸망의 길을 걸었다. 이럴 경우 그들은 자연의 도리, 즉 당연히 멸망해야 할 인위(人爲)와 자연의 조건의 합치로 멸망한다는 자연의 도리적 판단을 내린다.

중국에서는 辛酉年에는 혁명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다. 닭의 해는 매 61년마다 한번씩 닥쳐온다. 그때는 왕조를 교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孔子이래의 믿음이다. 가령, 첫 신유년을 무사히 넘기면 다음 신유년…… 해서 네번까지 무사히 넘겨도 다섯번째는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는 300년 이상 지탱한 왕조가 없다. 어떤 왕조도 300년째의 신유년에는 반드시 교체되었다. 혁명을 당하는 측에서도 신유년이 다가오면 혁명이 다가왔다는 암시를 받고 천자는 사악(四岳)에 제사지내고 천지신명에 빌어 평안을 기도하고 민중은 ‘천시도래(天時到來)를 이유로 왕조비판과 무장봉기를 서둔다.

이와 같이 자연의 도리란 일종의 신앙의 형태로 정변이 일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 61년 주기설은 미신이라기보다는 이 나라가 겪은 체험적 필연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도 있다.

헌턴톤이란 미국의 기상학자가 중국의 기상 주기를 조사한 결과, 거의 60년을 주기로 해서 한냉(寒冷), 온난(溫暖) 강우량(降雨量)의 다과란 자연현상을 되풀이해 왔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 중국은 61년마다 메뚜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팔백의 「大地」를 통해 메뚜기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 많겠지만 메뚜기를 한자로는 蟲變에 蝗(蝗)를 쓰는 것으로도 짐작되듯 가장 무서운 벌레로 인식되었다. 배암보다 훨씬 더 무서

운 것이 (메뚜기)인데, 이것은 몇억만마리가 발생하면 산과 들을 단숨에 삼켜버린다.

이렇게 되면 기근이 생긴다. 이것이 대체로 61년마다 나타나는데 그들은 그것도 자연의 섭리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왕은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 이러한 자연변이(變異)는 왕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은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기상주기란 자연현상과 일치하는 자연의 철학이었다.

우리가 미신이다 뭐다 하는 선험적(先驗的)철학 가운데도 객관적, 과학적 체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점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현대과학은 이론적으로나 수식(公式)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모조리 미신이라고 일축한다. 일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되다보면 후일 과학 그 자체가 권위를 잃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렇지만, 동양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분석적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경험적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종합적 정서적으로 표현하는데서 자칫하면 미신적 표현방법으로 오인하게 된다. 말하자면, 포축의 방법은 같으면서 설명의 방법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동양적 미신으로 생각되어 온 간지(干支)와 인간의 운명과의 상관관계 같은 것은 辛酉革命說과 같이 과학적 사실의 동양적 표현방법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도 확일적인 현대과학 비판이 간단히 허용될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筆者·本協會理事 경원대 工大教授, 工博]